고유가 엎친데 곡물가 쇼크 덮치나

유가 고공 행진에 쌀·옥수수 등 재고율 15.2%로 사상 최저

35년만에 동반 파동 우려… 수입 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비상'

내년 중순 이후 세계 곡물재고 상황이 사상 최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1970년대초 이후 35년여 만에 곡물-석유 동반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곡물수급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2008곡물연도(2007년9월~2008년8월)말 기준 쌀·옥수수·밀·보리·귀리 등 세계 전체 곡물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이 15.2%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7곡물연도 재고율 추정치(16.4%)보다 1.2%포인트 낮을 뿐 아니라, 통계가 존재하는 1960년대 이래 최저치인 1972~73년 '곡물 파동' 당시의 15.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정점이었던 1987곡물연도의 35%와 비교하면 20년만에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2008곡물연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 사상 최대인 20억9천539만t에 이르고 생산은 20억7천883만t으로 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율에서는 생산이 소비를 다소 앞서지만, 2005곡물연도 이후 3년 연속 소비가 생산을 초과함에 따라 기말재고량이 3억1천916만t으로 1년 사이 4.9%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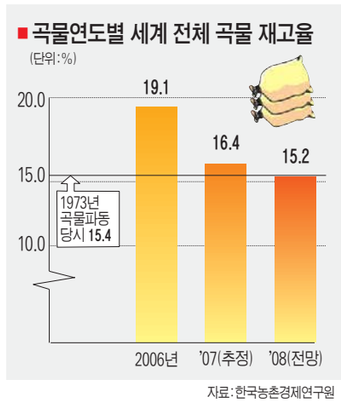
주요 품목별 재고율도 ▲쌀 18.5%(2007)→17.5%(2008) ▲밀 20.1%→17.8% ▲옥수수 14.6%→14.5% ▲콩 27.6%→21.1% 등 대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처럼 여의치않은 수급 여건으로 미뤄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쌀·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 가격이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4일 현재 밀(소맥)의 경우 캔자스상품거래소(KCBOT)에서 12월물 인도분이 작년 같은 달보다 49%나 높은 t당 284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점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12월물 옥수수와 대두(콩)도 각각 t당 151달러, 392달러로 작년 동월대비 각각 7.9%, 59.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운임 상승까지 겹쳐 옥수수·대두·대두박(콩깻묵) 등 주요 사료용 곡물의 운임 포함 수입가는 지난 14일 현재 각각 t당 304달러, 518달러, 453달러로 1년 전보다 40.7%, 65.5%, 54.6%씩 뛴 상태다.

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박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 곡물 재고율이 18~19%인 점을 감안하면 15%대의 재고율은 곡물 수급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신호"라며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유가 급등마저 이어질 경우 1973년과 같은 곡물-유가 동반 파동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 박사는 "당장 국내 곡물 생산기반을 크게 늘리기 힘든 만큼 정부는 우선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과 기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1972년 곡물 파동은 주요 곡물 수출국이던 옛 소련이 대흉작에 따라 곡물 수입에 나서면서 시작됐으며 쌀과 밀, 콩의 국제가격이 3~4배로 뛰면서 '식량 안보', '식량 민족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위축에 이사 안간다

3분기 전국 인구 이동 규모 소폭 줄어

올해 3·4분기에는 여름 휴가철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인구이동 규모가 소폭 줄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올해 3·4분기 인구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이 각각 -275명, -2천3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4분기에 비해 '순이동' 인구가 광주·전남 각각 85.6%(1천629명), 12.8%(349명) 감소한 것으로, 휴가철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이사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는 3·4분기 각 자치구 내의 이동인구가 1만8천950명으로, 2·4분기(2만2천308명)에 비해 15.1%(3천358명) 줄었다. 전남도 3·4분기 시·군 내 이동이 2만3천801명으로, 같은 기간 주소지를 옮긴 사람이 4.9%(1천216명)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올해 3·4분기에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총 193만9천명으로, 지난해 3·4분기보다 3.5%(7만명) 줄었다. 또 이는 올해 2·4분기에 비해서는 8.0%(16만9천명) 감소한 것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04년 3·4분기(186만4천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두바이유 또 최고치 경신

배럴당 90弗 육박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하며 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1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29달러 급등한 89.69달러에 형성되며 종전 최고치인 지난 7일의 88.83달러를 넘어섰다.

두바이유의 초강세는 전날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배럴당 3달러 이상 뛴 뉴욕과 런던 선물시장의 영향이 시차 때문에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날 종가 98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던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1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배럴당 0.74달러 내린 97.29달러에 마감했고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격도 전날보다 배럴당 0.65달러 낮은 94.84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국제 원유선물의 하락에는 WTI 현물 인도지점인 오클라호마주 쿠싱지역의 재고가 전주보다 120만 배럴 늘어난 1천460만 배럴을 기록한 점과 유가 선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차익매물이 출회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주간 재고발표에서 지난 16일 기준 미국의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100만 배럴 감소한 3억1천300만 배럴로 집계됐으며 난방유를 포함한 중간유분도 1억3천100만 배럴로 전주 대비 240만 배럴 줄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소득세수 4년새 무려 81% 증가

근소세·종소세·양도세 크게 늘어

최근 4년 동안 소득세수가 무려 8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국세 증가율(38.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양도소득세 급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세수실적 전망치 기준) 소득세는 모두 37조5천226억원이 걷혀 2003년(20조7천873억원)에 비해 8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총국세 수입은 2003년 114조6천642억원에서 올해는 158조3천341억원으로 4년 동안 3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득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의 증가와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으로 근소세, 종소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주유소 '기름값 공개' 반쪽 되나

정부, 주유소 반발 부딪히자 공개 거부 업소는 대상서 제외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고유가 대책인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가 시작도 되기전에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보다 축소될 조짐이다.

주유소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가격공개를 끝내 거부하는 주유소는 공개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주유소간 경쟁을 유도해 기름값을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주유소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하던 정부는 '사업비밀'을 이유로 실시간 가격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안양의 석유공사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도 이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애초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실시간 가격정보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세부 지리정보와 함께 공개하고 추후 모바일 기기 등으로 공개수단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 의지에서 한발 물러선 이유는 주유소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정부의 실시간 가격공개 정책에 대해 "유가 부담을 주유소 업계에 떠넘기는 것으로 불법적인 면세유 빼돌리기를 조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유소의 80% 이상이 가격공개 반대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측의 추산이다. 특히 주유소업계는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처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VAN)를 통해 이뤄지는 정부의 실시간 가격정보 수집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당사자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는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강한 반발에 직면한 산자부측은 신용정보법 등을 근거로 가격공개 사업의 법적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단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세계 우수 식품 광주에 모였다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7 광주국제식품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를 둘러보고 있다. 25일까지 열리는 식품산업전에는 10개국 198개 업체가 참여해 우수 건강식품 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30대 직장인 절반

"기회만 되면 이직하겠다"

20대와 30대의 직장인 절반 가량이 실제로 이직 기회를 찾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소는 한국갤럽의 자회사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직장인 54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행복지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이직 기회를 찾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0대 46.6%, 30대 46.2%, 40대 40.5%, 50대이상 35.3%였다.

또 현재의 직장에서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0대 30.2%, 30대 36.4%, 40대 44.1%, 50대이상 58.8% 등이었다.

직장인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1.5점으로 작년의 49.7점에 비해 조금 올라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동해에 '불타는 얼음' 6억t 매장

울릉분지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 확인

지난 6월 채취에 성공했던 동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일명 '불타는 얼음')가 시추 결과 예상지점에 부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장량이 당초 예상했던 6억t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이 동해 울릉분지 해역의 수심 1천800m 이상 3개 지점에서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깊은 해저층에서 구간이 130m인 초대형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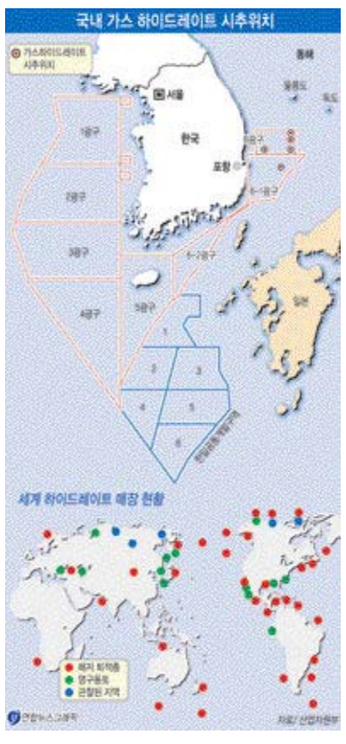
이번에 초대형 구조가 발견된 지역은 포항기점 동북방 135km 지점이다. 이 지점 외에도 이 곳에서 북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에서 실시한 시추작업에서도 100m 구간에 걸친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가 발견됐으며 남방 42km 지점에서도 1m 구간의 소규모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가 확인됐다.

정부와 사업단은 지난 6월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에 성공한 뒤 지난 9월25일부터 네덜란드 후그로사의 최신 가스 하이드레이트 전문 시추선 '렘 에티브'호를 이용해 부존여부의 확인을 위한 시추작업을 54일간 벌여왔다.

전 세계에 10조t이 부존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영구 동토나 심해저의 저온, 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갖고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대표적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이를 실제 활용할 기술은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은 "이번 시추결과만으로 울릉분지 전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3개 지점 모두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된 점을 볼 때 시추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지점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매장량이 기본 탐사에 근거해 예상했던 6억t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사업단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내년 실시될 정밀 물리탐사 결과를 종합해 내년 상반기에 발견지점 인근의 1차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코스피 끝없는 추락

외국인 "팔자"…3개월만에 1,800선 붕괴

코스피지수가 3개월여만에 1,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7.97포인트(0.44%) 떨어진 1799.02로 6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도 5.29포인트(0.73%) 하락한 722.04로 장을 마쳤다. 뉴욕 증시가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급락했다는 소식에 지수는 1800선을 하향 이탈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 공세에 1,771포인트까지 낙폭을 늘렸던 코스피지수는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1,800선을 지켜내는데는 실패했다.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뚫고 내려선 것은 지난 8월29일 이후 3개월여만이다.

외국인은 5천533억원 어치 주식을 추가로 팔아치웠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인도 1천176억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은 5천453억원 순매수였다. 전날 급락을 야기했던 프로그램 매매는 4천266억원 매수 우위로 마감됐다.

통신과 전기전자, 전기가스, 제약 등은 선전했지만 기계와 건설, 운수장비, 유통 등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 파트장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며 "단기 낙폭이 크지만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기 재산 관리소홀은 자기 과실"

일임매매 투자자 책임 70%

증시호황으로 증권사가 사상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과도한 단타매매로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기재산 관리 소홀에 따라 일임매매를 맡긴 투자자가 오히려 70%의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가 나온데다 최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증시 하락기인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에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겨 과당매매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천373만원을 배상해달라'는 투자자 A씨의 분쟁 신청에 대해 '증권사 30%, 고객 70%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포괄적 일임매매로 증권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라며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증권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자기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고객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